

뉴스홈 | 최신기사

## '김진수·권창훈 골' 벤투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종합)

송고시간 | 2022-02-02 01:05 عربي 中文



배진남 기자

기자 페이지

시리아와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서 2-0 승리...조 2위 확보  
카타르·유럽 10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이란 이어 15번째로 본선 진출  
연속 출전 횟수는 브라질·독일·이탈리아·아르헨티나·스페인 이어 '세계 6위'



하트 세리머니하는 권창훈

(두바이=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 추가골을 넣은 권창훈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2.2 yal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한국축구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위업을 이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일 오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8차전에서 후반 8분 김진수(전북)의 헤딩 결승골과 후반 26분 권창훈(김천)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최종예선에서 6승 2무(승점 20), 무패행진을 이어간 우리나라는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지고 현재 3위인 UAE(승점 9·2승 3무 2패)가 이날 이란전을 포함한 3경기에서 전승하더라도 최소 A조 2위를 확보해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나설 수 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A·B조 1, 2위는 본선에 직행한다. 조 3위끼리는 플레이오프(PO)를 치른 뒤 승자가 대륙 간 PO에서 남미 예선의 5위 팀과 카타르를 향한 마지막 경기를 벌이게 된다.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처음 출전했던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하면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 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볼스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 추가골 넣는 관창훈

(두바이=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 관창훈이 추가골을 넣고 있다. 2022.2.2 yatoya@yna.co.kr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월드컵에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다.

역대 최다인 다섯 번이나 정상에 오른 브라질이 1930년 열린 제 1회 우루과이 대회부터 올해 카타르 대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2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참가한다.

4회 우승국인 '전차군단' 독일(옛 서독 포함)이 18회(1954-2022년), 네 차례 챔피언에 오른 이탈리아가 14회(1962-2014년), 남미 강호 아르헨티나가 13회(1974-2022년), '무적함대' 스페인이 12회(1978-2022년)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그다음은 우리나라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결정한 15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에 앞서 개최국 카타르와 유럽 예선에서 각 조 1위를 차지한 10개국(세르비아,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잉글랜드, 독일), 남미 예선 1, 2위를 달리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시아 예선 A조 이란이 카타르행을 확정 지었다.

아랍권에서는 처음 열리는 월드컵인 카타르 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하를 비롯한 5개 도시, 8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We Do Technology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 뉴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 "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 마스크는 '유지'

## 드리블하는 황의조

(두바이=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 황의조가 드리블을 하고 있다. 2022.2.1 yaloya@yna.co.kr

자국 사정으로 홈 경기를 중립지역에서 치르게 된 시리아를 맞아 벤투 감독은 지난달 27일 레바논과 7차전 때 호흡을 맞췄던 황의조(보르도)와 조규성(김천)을 다시 최전방 투톱에 선발로 내세운 4-4-2 포메이션을 선택했다.

좌우 측면에는 정우영(프라이부르크)과 이재성(마인츠)을 배치했고, 미드필더 정우영(알 사드)의 경고 누적 결정 공백은 백승호(전북)로 메워 황인범(카잔)과 중원을 지킴으로 했다.

수비진은 김진수, 김영권(울산), 김민재(페네르바체), 김태환(울산)으로 꾸렸다. 골문은 김승규(가시와 레이솔)가 지켰다.

한국은 전반 불 점유율에서 약 80%-20%로 크게 앞섰으나 경기 내용은 팽팽했다.

슈팅 수에서도 한국이 8개-3개로 많았지만,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유효슈팅은 한 차례도 기록하지는 못하는 등 상대를 공략하는 데 애를 먹었다.



## 패스하는 정우영

(두바이=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 정우영이 패스를 시도하고 있다. 2022.2.1 yaloya@yna.co.kr

오히려 두 차례 실점 위기를 넘겼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재성의 낮은 크로스에 이은 정우영의 슈팅으로 포문을 연 한국은 전반 10분 마흐무드 알 마와스의 프리킥에 이은 오마르 크리빈의 헤딩슛이 골문으로 들어갔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와 한숨 돌렸다.

이후 전반 14분 공격에 가담한 김진수가 골 지역 왼쪽에서 시동한 강력한 원발슛이 옆 그물을 출렁였다.

한국은 전반 24분 수비 실수로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진수가 골키퍼 김승규에게 백패스한 공을 알 마와스가 잼싸게 쇄도해 오른발로 밀어 넣으려 했으나 다행히 골문을 벗어났다.

한국은 좀처럼 시리아 수비를 뚫지 못했다. 전반 추가시간 조규성의 위협적인 헤딩슛도 불발됐다.

벤투 감독은 후반 시작하면서 정우영을 빼고 권창훈을 투입해 오른쪽 측면을 맡겼다. 이재성이 왼쪽으로 옮겨갔다.

검수완박에 청문장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 '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이션 '불 끄기'

##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126  
참에 고발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59  
대병원 자원봉사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50  
안 맞아"(종합)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40  
동재개 예열?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33  
힐 예정"

뭐하고 놀까? #홍→





#### 산제골 넣고 환호하는 김진수와 선수들

(두바이=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 김진수가 산제골을 넣고 벤치로 뛰어가 환호하고 있다. 2022.2.2 yaloya@yna.co.kr

후반 7분 백승호가 상대 미드필드 중앙에서 시도한 오른발 프리킥이 골키퍼에게 잡히고 나서 1분 만에 마침내 벤투호의 카타르행을 결정짓는 김진수의 골이 터졌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태환이 올린 크로스를 김진수가 골 지역 왼쪽에서 슛구쳐 올라 헤딩으로 시리아 골문을 열어젖혔다.

한국은 후반 22분 황의조가 권창훈, 조규성으로 이어진 패스를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들어 오른발슛까지 연결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혀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24분 조규성이 빠지고 최근 독일 헤르타 베를린에 입단한 이동준이 들어가고서 2분 뒤 추가골이 터졌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재성과 패스를 주고받은 권창훈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원발 중거리 슛으로 시리아 골문에 꽂아 승부를 더 기울였다.

한국은 후반 44분 카르빈의 헤딩슛이 골대를 맞고 나와 다시 위기를 넘겼다.

이후 황의조와 이재성을 빼고 김건희(수원), 김진규(부산)를 투입해 두 골 차 리드를 지켜냈다.



#### 환호하는 김진수

(두바이=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

김진수가 득점을 한 뒤 환호하고 있다. 2022.2.2 yaloya@yna.co.kr

🔗 관련기사

'혼돈의 B조' 일본, 사우디 꺾고 2위 유지...승점 1점 차 추격(종합)

'월드컵 본선행 눈앞' 벤투 감독 "홍철 위해 승리 노릴 것"

'가자! 10회 연속 월드컵...벤투호, 설날 밤 카타르행 확정 도전

위기 넘긴 벤투호...코로나 확진 홍철 제외한 전원 음성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2 01:05 송고

[#카타르 월드컵](#)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 채 두 눈만 열쫓벌들...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췄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픽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